

■ 음악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상반기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18. 06. 11.(월) 10:00~14: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상반기 공모 중 음악분야는 255건의 응모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의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와 개인을 제외한 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메시지가 강한 단체 및 공연, 언론기관 주최 공연들,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만으로 구성된 공연들이 규정에 의거해 배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공연 작품의 예술성, 공연단체의 역량, 해당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로 중복지원을 배제하며 기회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타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단체나 개인들을 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젊은 연주가 및 독립 연주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하여 최종 단체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수도권 문화집중현상에 우려한 심사위원 전원은 지역안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고, 위원회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단체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자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연예술계가 침체되어 고전하는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한 전원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모에서는 특히 더욱 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지역 공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